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확실한 치안대책 확립하길

경희대의 밤은 규찰대가 지키고 이대의 밤은 비상연락망이 지킨다(?)

이화여대에는 예전부터 치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경비아저씨의 아간순찰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수난은 계속되었다.

어느날!

이화여대 캠퍼스 곳곳에 전화박스가 들어섰다.

전화박스는 이화여대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학교에도 다 있는 것이겠지만 다른 학교의 전화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캠퍼스내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근처에 있는 전화기에 부여된 번호를 눌러주면 경비실의 완전무장한 경비아저씨가 즉시 와서 치한을 퇴치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어떤가.

치한은 물론이고 뭇골목의 깡패에 학회실에 도둑까지…

우리학교에는 규찰대라는 제도가 있어 장학금까지 주면서 밤을 지키긴 하지만, 그 운영상태는 주먹구구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비비며 드넓은 캠퍼스를 돌아다닌다고 하여 근본적인 치안부대를 막을 수는 없다.

밤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학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신 성 빈
〈농학2〉

근본적 교통대책 수립 절실

분당스쿨버스 사고가 난지 어느새 한달이 넘었다.

사고 직후 분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 같더니 요즘은 더 많아 진 듯 하다.

처음 분당스쿨버스가 생겼을 때 아침에도 남는 자리가 많았으나 지금은 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학교내 대자보에는 배차시간이 오전 10시 이전에는 20분간격이라고 돼있으나 개강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다.

분당 이외의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리역은 이직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다.

이런 곳에 버스가 많이 다닐리 없고 신갈까지 가는 차도 없다. 있다면 택시가 있을 뿐인데 학교까지 2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4백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강의시간에 맞추느라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된다.

첫차가 오전 7시45분 오리역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으나 언젠가 첫차가 아침 8시45분에 오는 바람에(어느 학우의 말을 빌리자면) 오리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그 많은 학생들이 차 한대로 모두 타고 갈 수 있었을까. 몇몇 학생은 학교가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기 위해 힘들여 준비하고 난 후 버스를 기다리느라 지치고, 차안에서 시달리느라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분당스쿨버스는 지금 2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요즘은 증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오리역에서 스쿨버스가 출발시간 전에 오리역에 와서 대기하는 것을 본적은 거의 없다.

오리역에도 학생들이 줄을 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한가지 더 바란다면 지난 3월9일 사고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지난번 사고도 배차간격이 지켜지고 차량도 많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은 미
〈사회대 회계2〉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하자

대학에 와서 새롭게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대학에 왔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수님'이라는 단어는 대학에 들어왔다는 기분을 확실히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호칭의 사용은 대부분 틀렸다.

물론 호칭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수'는 직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직접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칭할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면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직분으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실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고등학교때까지 했던대로 '선생님'이라 부르면 된다. 이것은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는 분에 대한 인격적인 호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은 놔두고서라도 교수님들 조차도 대면식에 선생님이라 불리는 것을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동등히 대해지는 것 같아 달가와 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다.

호칭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말한마디의 사용 중에서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풍토의 조성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서 자 영
〈간호 2〉

공대 화장실에 '낙서장' 비치
낙서문화 자리매김 계기

흔히 화장실을 가보면 그 사용자들의 문화를 어림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어떤 집단의 문화적 수준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근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으로 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은 가식과 허위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사용자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화장실 벽에는 사회문제로 부터 자신의 사적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낙서가 볼일(?)을 보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어쩌면 갖가지 여론조사보다 이 낙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반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애교로만 봐주기에는 화장실을 늘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노고가 매번 헛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차에 얼마전 부터 공대 화장실 벽에는 낙서장이라는 노트 한권이 보이기 시작했다. 낙서에 대한 본능적인(?)욕구와 유지·관리의 편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참신한 시도라는 생각이다.

단지 개인의 낙서로만 머물지 않고 장차 여론수렴의 신문고 역할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올바른 의식과 적절한 제도가 결합될 때 바람직한 문화가 생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공 광 섭
〈토목 1〉

알 림

◇제1066호 4월3일자 4면에 실린 '청산장학재단 설립 윤종근 동문' 인터뷰 내용중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을 '법과대학생중에서'를 '우리학교 재학생 중에서'로 바로잡습니다.

◇제1067호 4월10일자 1면 '학내건설공사'기사중 '증축된 공간은 23개의 교수연구실로'를 '증축된 공간은 12개의 교수연구실과 학생자치공간으로'로 바로잡습니다.

등교시간대 스쿨버스 집중배치
대중교통의 증차운행 추진중

알립니다

먼저 그동안 학우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교통문제에 대해 올바로게 전하지 못한점 사과드리며 저희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버스 운행의 개선, 대중교통 유치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다 나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즉시 시행되거나 개선될 부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즉시 시행할 내용

1. 강남 노선의 관광버스 증차운행
2. 학교버스의 정시출발 운행

그동안 학교 버스 시간표가 작성되어 3월6일부터 실시되었지만 제대로 운행되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개선위에서 이를 협의하여 정확히 준수키로 하였다.

3. 수원노선의 주 통학시간대 직행버스 유치

현재 수원에서 등교하는 학생수는 거의 강남의 학생수와 비슷하다. 그래서 등교시 수원노선에 학교로 직행하는(중간에 정차하지 않음) 수원시내버스를 중간 배차시키고 있다.

중장기적인 검토내용

1. 교통종합 시스템의 개발

학교로 통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과 노선 및 해당노선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도록 유도하여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분산을 유도한다.

2. 신갈 및 분당선의 활성화 방안

현재 토, 일, 방학중 실시하고 있는 학교버스의 운행은 이용 학생들이 적어 학교 버스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적극적 유치와 아울러 신갈및 분당스쿨버스의 확대, 연장운행으로 학생들의 휴일중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3. 차량증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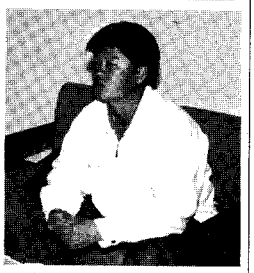
현재 26대인 학교버스에 3대의 증차를 요구, 검토중에 있다. 또한 교직원 차량의 학생수송차량으로의 전환 및 97년 예상되는 학교 차량의 폐차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속도로 체증에 따른 학우들의 불만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여러분께서는 수업시간보다 조금 일찍 등교하는 시간적 여유와 승차장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의 집중현상보다는 분당선이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며 대중교통체제로의 전환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원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

인터뷰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 참가자 최문종(산공4)



지난 4월4일 외대 303강의실에서는 특별한 보고대회가 있었다

보고대회의 내용도 그렇지만 지난 2월5일부터 9일까지 '동일원리연구회'주최로 북경에서 열린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에 참가해 북한 학생을 만나고온 최문종(산공4)군의 발표순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에는 북한 학생을 비롯한 세계 30여개국의 학생이 참가했고 남한 대학생과 북한 대학생들의 활발한 접촉도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보고대회가 끝난후 최군과 가진 인터뷰이다.

—어떤 제기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라면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사회의 체제와 김일성에 대해 절대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북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북한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실상이 어떠하다"라고 그들에게서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대화중 경제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북한의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을 간략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날뛰는 북한의 학생들을 비교할때 우리가 그들에 비해 너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젖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본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창우 기자〉

朔風

씨름판과 정치판

요즘 정치판은 너무 재미있다.

아니 재미있다 못해 안방의 코메디보다 더 웃긴다.

여당 야당 할 것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싸우기도 전에 눈씨움이 치열하다. 여기에 후보의 거물급 인물레는 걸치레 경쟁을 떠나 '아랫 배 싸움'하듯 소리만 요란하다.

"우리는 누구를 세우겠다", "그쪽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끝없은 아이들의 집안 자랑 뿐이다.

또 올망졸망한 각당내 후보들은 경선이니 낙점이니 어른 상투잡듯 이리저리, 좌충우돌이다.

여기에 하나더 가관인 것은 영원한 '코메디의 황제'인 정주일 회원도 이판에 가세하겠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농담이었다"라며 번복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쇼는 TV개그 보다 더 웃긴다.

여당 야당에서 이틀이 오르내리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무게있고 이름높은 백두급 장사들이다.

보통 전 총리급에다가 개성있는 말—행동—모습등 '한주먹'은 가진 어른들이다. 또 한라급 장사 후보를 보더라도 민주투사·재벌회사 사장·만년 정치인·변호사 출신 등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다 모여있다. 그자리에 꿀떡이 있는지 알길은 없으나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자리 근처에 얼씬 거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왕설래 말들만 많을 뿐 서로 겁먹은 여야의 눈치싸움에 후보는 얼른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도쿄, 오사카 선거처럼 예상못했던 무명의 장사가 백두급을 물리치는 이변을 낳을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6월 모래판에 모인 시민들의 시민들의 한표에 운명이 달렸다는 것 밖엔…

며칠전 아침신문에도 후보들 '모래판' 기사가 실렸다.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힘이 더 셀것이라는 동동… 마지막 심판관인 시민들의 의향은 아랑곳 없이 '북치고 장구치고' 신경전이다.

어쨌든 서울의 지적도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소시민들만 후보 쇼구경때문에 괴곤하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고 이런 인물이 적임자며 이렇게 이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누가 후보냐가 더 큰 이슈인 것처럼 몰고가는 정치판이나 언론들의 작품수성에 가뜩이나 지옥철과 오염된 서울공기를 마시는 시민들은 어지럽기만하다.

누가 후보가 되든 상관없다.

어차피 시장자리는 비어있고 한자리 뿐인 걸 어쩌라. 사람눈에 아니 각당들 눈에 따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보이는 대통령 다음가는 '파워의자'인 것을 누가 무어랴 하랴.

하지만 아무리 자리하고 인연없는 시민이라도 세금을 내는 족속들이라 우리든 축내는 도둑놈이나 사기꾼, 미치광이가 아니면 누가 시장이 되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자리에 오른 후보가 위에 열거한 '놈'이나 '꾼'들에 해당되지는 않을지언정 9백만명 시민의 눈과 귀가 항상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바늘방석에서 시정을 펼칠만큼 불립없다. 선거뿐만 아니라 당선후에도 시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줄때가 된 것이다. (蕨草)

남·북학생의 의식차 느껴
'전체를 위한 자아관' 본받을 만

=친척중에 통일교에 관계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권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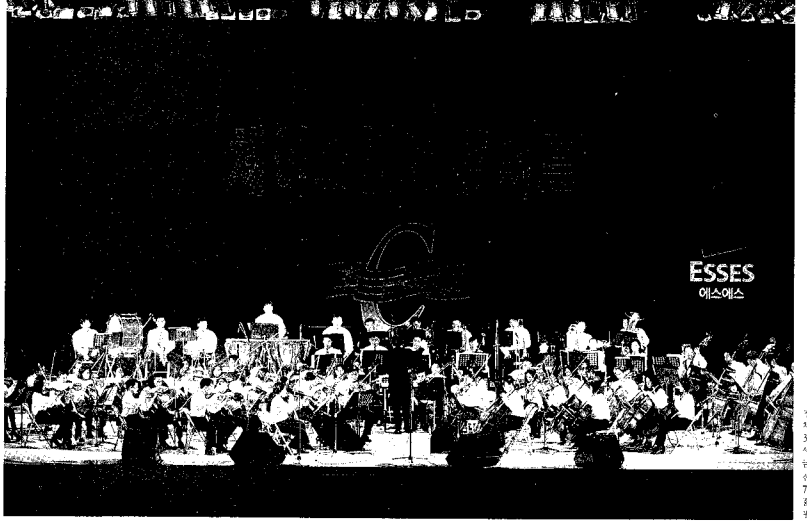
—북한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어땠습니까.

=북경에 도착해서 처음 북한 학생들을 대했을 때는 어색한 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민족이란 생각이 들고 점차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한 학생들은 공식 세미나 일정과 첫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평상복을 입었는데 북한 학생들은 공식일정이외의 시간에도 계속 정장을 입고 있더군요.

체이스컬트와 함께한 열일곱번째 동아리



젊음의 정직함 때문에…
우리의 음악이 하나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젊은이들을 위한 체이스컬트 콘서트—
저희들의 작은 음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음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가 뭉쳤던 그 자리…
순수 아마추어인 저희의 음악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격려와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에서 흘러넘쳤던 젊음의 정직함으로
우리의 음악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정직한 젊은이들을 위한 체이스컬트 콘서트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서 남녀혼성 저희들 관련 17개대학 동아리들 등 70여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젊은이들만을 순수하게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정직한 젊은이들—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

체이스컬트 광고와 카드뉴스 모집에 관심이 있는 대학동아리나 학과는 체이스컬트 대 장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양식으로 신청해 주십시오.